K-푸드 대표 주자 '전남 김' 미국인 식탁 오를 '준비 끝'

수산식품기업 해농·미국 카네야마 1000만달러 규모 수출 계약
월마트·크로거 등 대형 유통망 진입…마른김·조미김 등 납품

전남산(産) 김이 월마트(Walmart)와 같은 미국 대형 유통망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전남도는 19일 "지역 대표 수산식품기업인 ㈜해농이 미국 뉴저지의 식품 유통사인 카네야마(KANEYAMA USA)와 1000만 달러 수출 및 미국시장 공동 진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 대형 유통망인 월마트(Walmart USA)를 비롯한 현지 유통 채널을 통해 전남 김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고품질 마른김, 조미김 등 해조류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과 현지 유통 활성화 등이다.

이번 협약은 미국 월마트 등 대형 유통망 진입, 전남 김의 글로벌 수출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해농이 생산하는 고품질 마른김, 조미김, 김밥김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납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농이 고품질 김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카네야마가 미국 시장 내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유통을 담당한다. 두 회사는 제품 포장과 통관, 물류 등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카네야마는 월마트, 크로거(Kroger) 등 미국 내 대형 유통망에 다양한 아시안 푸드 제품을 공급하는 프리미엄 유통기업이다. 높은 유통 실적과 다양한 제품 소개로 각종 수상 이력을 보유한 유망 바이어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지역 김 제조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K-푸드의 대표 격인 김은 올 4월까지 수출액만하더라도 3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주력 수출품이다. 전남도는 최근 미국 현지 식품 유통사와 1000만 달러 수출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 현지 유통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당장 김 수출 확대를 위해 농수산식품 수출 직불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 수출 제품에 대한 중금속 안정성 검사비, 해외판촉 지원 등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올해 4월까지 전남도의 김 수출액은 전년보다 17.3% 증가한 2억 7500만 달러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 산업은 전남 수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이번 협약은 전남 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안정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하차도 차량진입 차단막 시설점검

장마철을 앞두고 19일 광주시 북구 소속 직원들이 동림동 우석지하차도에서 도로 침수 시 차량통제 차단막 작동유무 원격 제어 시스템 시연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빛돌이·빛나영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24일 광주 홍보캐릭터 대전
전국 23개 지역 캐릭터 참여

광주시가 홍보 캐릭터인 '빛돌이'의 결혼식을 열고 다양한 광주지역 행사와 정책을 홍보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앞 빛의 정원에서 광주시 대표 홍보캐릭터인 '빛돌이'와 여자친구 '빛나영'의 결혼식〈사진〉을 콘셉트로 한 '2025 광주 홍보캐릭터 대전'을 개최한다.

광주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적인 홍보 캐릭터와 교류를 통해 광주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청 야외 공공예식장 '빛의 정원'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광주 시민의 날'과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23개 지자체와 31개 기관의 캐릭터가 하객으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와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광주 동구 '충장축제프랜즈', 서구 '서해온', 북구 '부끄&부부'를 비롯해 서울 '해치', 부산 '부기', 대구 '도달쑤', 경기 '봉공이', 수원 '수원이', 공주 '고마곰'·'공주', 광양 '매돌이' 등 여러 도시의 대표 캐릭터도 참여한다.

또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교통공사,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공공기관 홍보캐릭터들도 참여해 유용한 생활 정보와 주요 정책을 안내한다.

광주지역 콘텐츠 기업이 선보인 '두다', '마법소녀 디디', '다이노맨' 등 지역 창작 캐릭터들도 행사에 함께해 문화콘텐츠 홍보에 나선다.

미니 체육대회, 정책 골든벨, 캐릭터 홍보부스, 네컷 포토존 등의 행사도 같이 열려 시민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박광석 대변인은 "캐릭터를 매개로 한 이번 행사는 광주시의 정책, 행사, 공간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복합홍보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시정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빛돌이' 결혼식이 열리는 시청사 공공예식장 '빛의 정원'은 예식장 대관료 부담 없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과거와 현재 잇는 플랫폼 조성

작품 '기억에서 기록으로' 5·18 기록관 선정…2028년 개관 목표

새로 지어지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수장고의 설계 당선작〈사진〉이 선정됐다.

19일 광주시에따르면 최근 포화상태인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수장고의 확충을 위한 '5·18기록물 보존시설' 설계 공모에 종합건축사사무소 '창'의 '기억에서 기록으로' 작품이 당선됐다.

이번 공모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5·18기록관의 수장고가 95%의 만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관·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사업비 433억여원을 투입해 미래 세대 전승을 위한 현대화 사업인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건립하는 보존시설은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부지에 연면적 66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된다. 수장고·전시실·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고 개관 목표는 오는 2028년이다.

당선작인 '기억에서 기록으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상징성 있는 형태 계획, 입면 디자인의 창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거(Archive): '기억을 스며들다', 현재(Void): '여백으로 남겨두다', 미래(Record): '기록을 쌓아가다'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 당선작은 5·18기록물을 통해 5·18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다는 기획의도를 담았다.

외부에서 지하1층 전시실로 건축물 동선을 연결해 과거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공간을 표현했고, 1층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재 일상으로 열린 공간을 형상화했다. 2·3층에는 수장고를 통해 기록물 쌓아가는 미래의 모습을 표현하는 등 단순한 보존시설을 넘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플랫폼을 제안했다.

기존에 없었던 자료 보존 처리와 복원 등 기능도 포함된다. 신설 수장고에는 현재의 3배 규모인 600만여점의 기록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최소 1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수장고 당선작. 〈광주시 제공〉

공모 선정된 설계업체는 앞으로 420일간 설계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5·18 역사공간에 조성되는 신축 보존시설은 단순한 공간 확장이나 기록물의 안정적 보관·관리를 넘어, 미래 세대가 오월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내산 조사료 생산 돕는다"…전남도, 축산·경종농가 1004억 지원

전남도는 19일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100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 조사료 재배면적의 36%(6만ha)를 재배하는 주산지다. 전남도는 1004억원을 들여 조사료경영체(영농조합법인)와 축산농가, 경종농가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650억원, 기계·장비 구입 122억원, 조사료 종자 구입 115억원, 퇴·액비 38억원, 가공유통시설 17억원, 입모중 파종 18억원, 품질관리 7억원, 품질등급제 37억원 등이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의 경우 6만ha에서 생산된 조사료 제조운송비로 ha당 동계 114만원, 하계 221만원을 지원한다. 품질등급제를 받은 유통판매용 조사료는 ha당 최대 259만원을 지원받는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재배·수확·운송에 필요한 트랙터, 결속기, 랩피복기 등 장비를 조사료경영체에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는 전국 조사료 재배면적의 36%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고품질 조사료 생산지로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인정적 경영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 -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